



## 살아생전에 우리가 활짝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남):**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기에요, 그동안 공부하던 것 중에서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놓고 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무엇이 튀어나올 때, 놓는 게 너무나 귀찮아 갖고요, 어느 날은 아이, 그러면 한꺼번에 몰락 놔 버리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놓느라고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락 놔라 그러면서 몰락 놓으라는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 거 같았습니다, 느낌에요,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소리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한 6, 7개월 전에도 놓고 놓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라지는데, 이거 이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남):** 그래 가지고 겁이 나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생각에...

**큰스님:** 죽어야 본다고 그랬는데 왜 나오요? 하하하... 아니, 지금 죽으나 요다음에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로 말이야.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질문자(남):** 스님께 설법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알면 될 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허허하... 스스로 마음이 걸림 없는 데로 도달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버렸는데... 본래 진리가 버리고 가는 겁니다. 본래 버려져 있는데, 본래 내가 없고 버려져 있는데, 주인공의 시자로서 몸뚱이를 움직여 버리면 달 뽀이 내가 아니라이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내가 아님을 알고, 참나가 내가 아닌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나'는 정신계고 '가짜나'는 물질계란 말입니다. 이 물질계가 보이지 않으면 무효예요, 보이지 않아도 무효고, 정신계가 없고 이 물질계만 있어도 무효예요, 보이긴 해도 그것은 안 보이는 거나, 못하는 거나, 중생으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하지 말고요, 그대

로 정진력을 길러서 부지런히 뛰세요, 하되 힘이 없는 것이니까요,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겠다 한다면 그냥 '주인공,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뛰세요, 내가 의욕이 없으면 '의욕이 있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웃으면서 속으로 그럭하고선 의욕 있게 생각하게 만들고, 화가 나면 '화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가고, 몸이 피곤해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지가 않잖아 '일으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일어나고요, 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그 왜 고달프게 살아요? 내가 쓸모가 없다면 그만 옷을 벗겨 갈 거고 쓸모가 아직 있다 하면 벗기지 않고 좀

더 둘 거고요, 새 옷을 입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 말을 했는데 가늠이 됩니까?

**질문자(남):** 예, 스님, 가늠이 됩니다.

**큰스님:** 하여튼 그 의욕과 그 모두를, 그것도 '욕심이니까 놓는다' 이리저 마시고요, 거기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생각대로 뛰어 보세요.

**질문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약 두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스님이 평소에 설법하시기를,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처음 이사 들어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는 잊어먹었어요.

그랬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머니도 조금 아프시고요, 저의 집사람도 조금 아프고 저도 좀 시름시름이 풀 거 같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찌뜨리진 데 가면 무슨 냄새를 맡는대요, 그리고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말씀이 저희 집 부엌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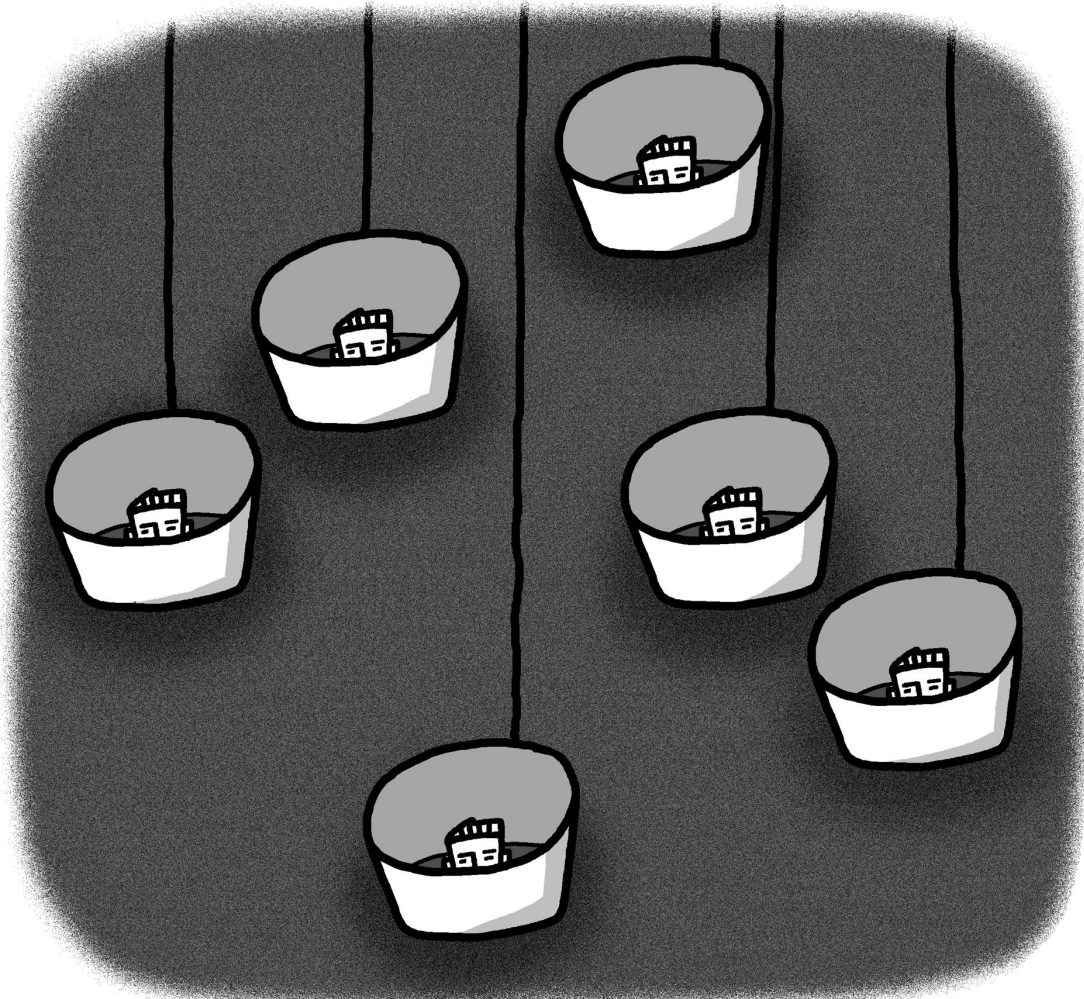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악마야, 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면 된다고 그러면서 절 보고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큰스님:**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해당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한 인과로서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항상 자기 주인공에 놓고 맡기세요, 그 속에 들어가면, 둘 아니게끔 생활을 한다면 그냥 스스로 없어져요, 그건 간단해요, 아주.

**질문자(남):** 둘 아니라면 누구랑 둘이 아닌 건지...

**큰스님:**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은 모르죠?

**질문자(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그 인과가 없다면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질문자(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인과성에 의해서, 전자에 살던 그 사람의 주인공과 자기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뜻을 알면 되죠,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자(남):** 예, 조금 알 것도 같고...

**큰스님:** 이거 봐요, 어머니의 과거에 살던 그 영혼 있죠?

**질문자(남):** 네.

**큰스님:** 또 부인의 과거에 살던 그 영혼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과 내 주인공, 셋이 다, 식구가 몽땅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스스로 없어져요, 그 좀 요량 있게 하세요, 요량이 지혜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봐야 길이 막혔구나 하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떠한 게 닥치더라도 내가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싱긋이 웃고 놓으란 말입니다.

**질문자(남):** 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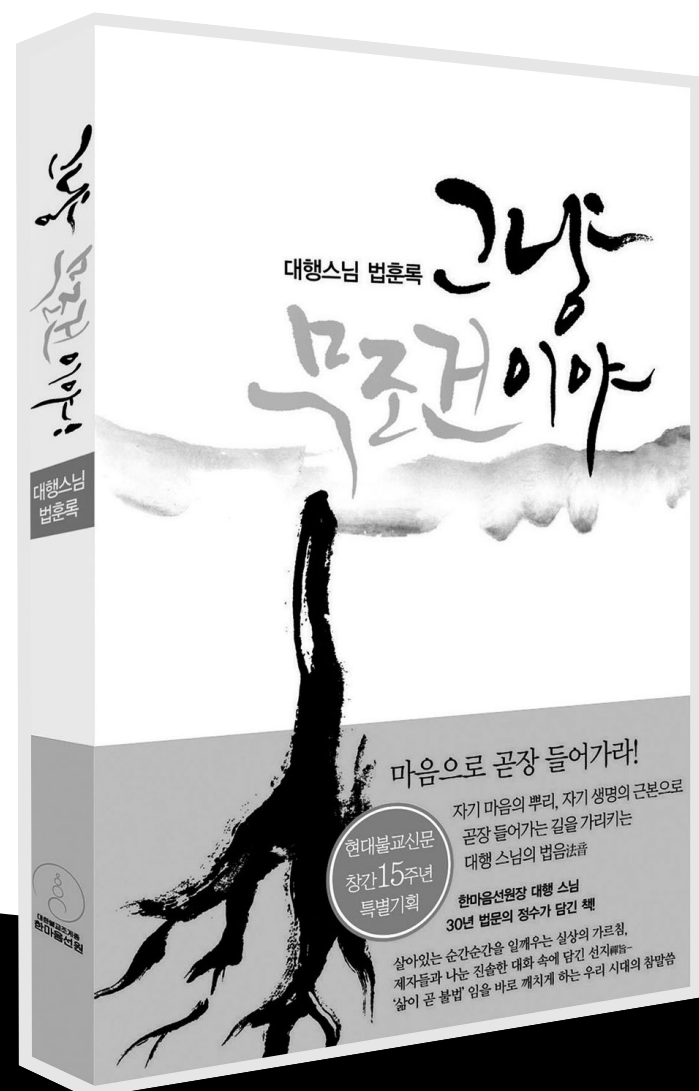
**큰스님:**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고 요다음에 다시 만나요.

**질문자(남):** 예,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거는 거기다 떨 것도 아니예요, 당신 진짜 보배예요, 그게.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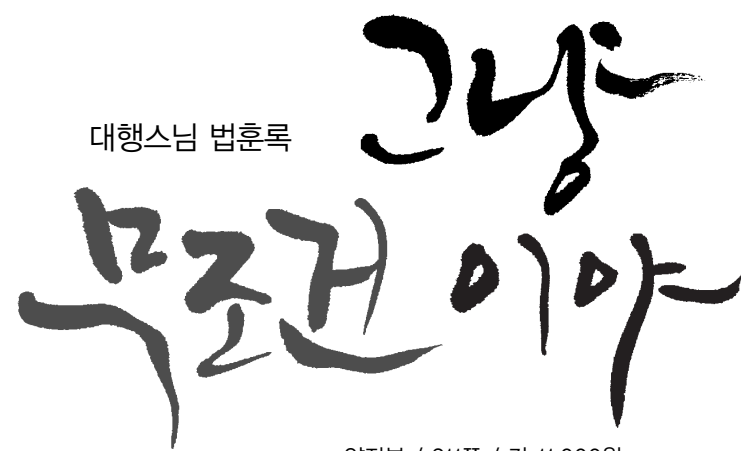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살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 내가 살겠다 말고 정진력 길러 부지런히 뛰세요

29면에서 계속

**질문자(2남):** 저는 독일지원에서 왔습니다. 법형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큰스님:** 주지 스님이 갔는데...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이 독일지원이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거기 저희 한국 신도와 독일 신도가 있는데, 독일 땅에까지 불법을 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선원을 나간 지가 지금 11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원법회 때는 큰스님을 뵈지 못했는데 그 후로 제가 선원에 나가게 돼서 지원 스님들을 모시고 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서울에 나와서 큰스님 뵈고 이렇게 또 질문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큰스님:** 나도 기쁘요.

**질문자(2남):** 다름이 아니고, 독일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저희 한국 신도와 독일 신도가 있는데, 독일 신도 분들께서 언어 문제나 요런 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한국 신도가 독일 신도 분들과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만 앞으로 독일 땅에 불법을 널리 전할 수 있을지 큰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게 그렇게 된다면 연가법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독일 신도와 한국 신도가 말이 이어지지 않아서 못 할 때는 바로, 상대방하고 이 주인공은 둘이라는 것을 알고 관하고 고 하면 저쪽의 주인공이 이쪽의 주인공으로 합쳐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문에 빨리 빨리 터득이 됩니다. 모르세요?

**질문자(2남):** 네,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영혼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어떤 신도의 파님이 저기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에다가 '너만이 빨리 하게 할 수 있다.'고 관하고 하니깐 그냥 그렇게 잘,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리만큼 영어라든가 뭐, 중국어라든가 이런 게 마음으로 딱딱 와서 대학을 다니고, 또 중국으로 다니고 한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뜻은 영혼끼리 아는 겁니다. 말은 보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뜻은 자기 영혼과 그쪽 영혼이 같이 통하기 때문에, 둘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알아지죠.

그래서 말은 못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외국 사람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쪽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의 본심을 이들을 다 지어주 이렇게 해서 내렸죠. "너희들 나가서 둘 아나게 건져라. 개구리다

할지라도 내가 개구리가 돼서 개구리를 건져라." 그러니까 천차만별을 다 장엄하시고, 또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장엄했다는 거는 흡수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으니...' 이런 거는 천체, 과거 미래 현재 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두를 한데 합쳐서, "내가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도량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모습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부모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형제들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 무



'둘 하나라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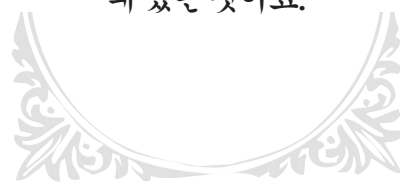
그러니까 하나도

미움이 없고 예뻐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항상

둘아나게 즐기게끔

돼 있는 것이죠.



엇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법회 할 때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동글게만 하세요. 모가 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 위력은, 둥근 가운데 그 위력은 쓸 만합니다. 말이 너무 깊어서 그냥 이렇게 '술 만합니다'고만 하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끝이 안 나는 말이거든요.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감사합니다. 먼 독일 땅이지만 큰스님이 항상 옆에 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러면요, 제가요, 잘나잘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잘나에 하나가 돼 주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한대도 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제들도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게기도 했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직결되고, 이 세상 일체 생명들의 근본도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을 짚으시며) 이리로 통해서 이리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자기 통로 외에 다른 통로는 없어요. 근본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 모두. 그래서 자성을 깨친 다 이런 말이죠.

우러들이 지금 살아나가면서 저 모자라는 일체 만물이 없다면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찌 깨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둘 하나라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야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미움이 없고 또 예뻐 것도 없고, 나와 더불어 항상 즐기게끔 돼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팔자 운명이다' '고(苦)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팔자다 운명이다 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집착만 없다면 고도 없죠. 집착이 없고 내가 없는 데 멸함이 어딴고 도가 어딴습니까? 그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자체, 사는 자체가 바로 도예요. 하여튼 반가워요. 허허허...

**질문자(2남):** 그렇지 않아도 스님 가르침대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그만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독일지원의 법당이 좁아서 수영장을 개조하는 불사를 하였던데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아주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서 저희를 돕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한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이구나. 참, 신묘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간염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님의 가르침대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스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즐겁고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법당을 꾸미는데 스스로 누가 와서 돌본다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부처님의 마음이 분신으로 하여금 할 만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시며) 첨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 밖에서라도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해서 그 도리를 안다면 더더욱 좋을 거구요.

**질문자(2남):** 네, 그런 인연들이 저희 선원과 인연이 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 분도 계시고요, 독일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러합니다. 불사라는 게 스님 말씀따라나 공부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래도 독일에서 오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나 하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지? 금방 잊어버렸어. 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 잊어버렸어. 꼭 필요한 말인데...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맥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질문자(2남):** 네, 독일 불자들이 그 인연으로



아는 사람은

팔자다 운명이다 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집착만 없다면 고도 없죠.

집착이 없고 내가 없는데

멸함이 어딴고

도가 어딴습니까?

그래도

내가 움직여가는 자체,

사는 자체가

바로 도예요.



인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큰스님:** 그래 그 말은 잊어버리고요, 허허허... 아주 필요한 말이 돼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하고 생활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아, 이 말이구나. 불교라는 말 있죠? 불교라는 말도 있고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불법은 상대성 원리로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또 불교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방 아는 게 아니라 길러져 가지고 어른이 돼서 삶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나 가톨릭

교니 불교니 하는 이름을 초월한 것이 불교지 그것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체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고 '교(敎)'는 이 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고 지혜로움을 느끼고, 잘못되고 잘되고를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모두가 불교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한 군데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또는 종교가 없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필연적으로 이 공부하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회자:** 오늘 질문은 다 했습니다.

**큰스님:** 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머니 속의 한자리에 한자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한자리가 아니고, 저 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한자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동서남북으로 다 헤어졌어도 한 주머니입니다. 한 주머니, 한 주머니인 까닭에, 모두 살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도 가지만, 우리가 그 한 주머니 속에서 자유자재권을 얻고 활짝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들 공부하는 게 지금 활짝 벗어나, 살아생전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살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벗어나 기간 해도 안 되고 벗어나고서도 들고 날 때에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우주에도 가고 지구로 다시 천하에 들고, 또 달로도 가고 천하에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내가 웃을 벗고도, 즉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또는 그 차원에 따라서 모두 소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중세기에 모습으로 나와서 그 고통스러운 거를 또 느끼고 알고, 그렇게 하다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함장하시며) 허허허... 그럼, 이제 내려갈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드린 거 잘 인식하시겠죠. 바깥으로 고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업사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 위 법문은 1997년 10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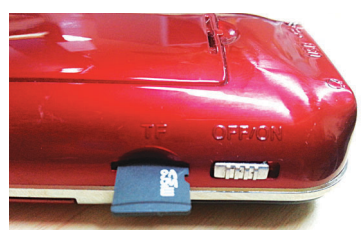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회)

- 장천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 4. 불마 권유를 위한 기도
- 5. 영산음악
- 6. 행복환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정월 염불
- 10. 지혜의 기도
-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2. 반스로 왔다
- 13. 사람을 쫓는
-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음을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부르네
- 19. 우리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문을 침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진언 1
- 22. 광명진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찬계
- 30. 법성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니다
- 36. 예불가
- 37. 찬법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환영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서원
- 43. 선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행원
- 46. 갈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영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홀로 피는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연장
- 53. 관세음보살 2연장
- 54. 개경계
- 55. 이상정명분

## 칠성상회 현불샵 복합기 할인판매



**OKI MB471 DN - 흑백**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 (복사/인쇄/갈라스크랜/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해상도 1200dpi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43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 (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 68,000원 (용량: 4,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OKI MC561 DN - 컬러**  
소규모 사무실과 업무 그룹을 위한 4가지 기능을 하나로 (갈라복사/인쇄/갈라스크랜/팩스)  
- 10명이상 동시 사용가능  
- 자동양면 인쇄 가능

현대불교신문 구매가 :  
595,000원 (vat 별도)  
- 설치비 3만원 별도 (배송시 지불)

토너 별도구매 : 105,000원\*4색 (용량: 5,000매)  
임대시 : 전화상담/기간24개월

구매 문의 및 상담 : 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 www.7-star.net  
입금계좌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